

효능감은 먼저 찍었고, 위기감은 마지막에 몰렸다

- 사전투표 +2.91%p, 본투표 +7.19%p가 말하는 것

구분	사전투표율	본투표 당일
2022	20.6%	30.3%
2026	23.51%	37.49%
증감	+2.91%p	+7.19%p

본투표 당일 투표율 상승폭(+7.19%p)이 사전투표 상승폭(+2.91%p)의 2.5배이다.

이 수치를 해석하는 통상적 방식은 “사전투표는 진보, 본투표는 보수로 결집했다”이다. 좀 더 공격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사전투표율의 상승과 결집 자체가 보수 진영에 본투표 당일의 위기감을 추동했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부터 사전투표율은 시간 단위로 공표된다. 보수 진영은 이 수치를 보면서 “이대로 가면 또 진다”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받았다.
- 누적된 정치적 충돌(조작기소 특검법, 정청래 “오빠” 발언, 노스빅 사태, 공소취소, 우형찬 양천구청장 후보의 “뽀뽀” 발언 등)이 결합해 보수 일반의 “공소취소·노스빅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라는 정서적 프레임을 만들어냈다.
- 사전투표가 끝난 후 본투표 당일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SNS·유튜브·카카오톡 단톡방 등에서 이 위기감이 빠르게 퍼졌고, 본투표 +7.19%p라는 폭발적 동원으로 표출됐다.

이 가설을 채택하면,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두 진영의 단순한 시간차 표출이 아니라, “효능감 표출 → 위기감 추동”의 순차적 인과 관계이다. 민주 진영의 효능감이 보수 진영의 위기감을 만들었고, 그 위기감이 본투표 당일에 결집됐다. 이는 향후 모든 선거에서 사전투표의 “조용한 사전 결집”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 **사전투표 +2.91%p, 본투표 +7.19%p: 두 진영의 시간차 결집**

위 가설을 직접 검증하기 위해, 8회 지선과 9회 지선의 사전투표 점유율(사전÷(사전+본))과 사전·본투표 절대표 증감을 16개 시도 전체에서 비교했다. 그 결과는 가설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전국 종합			
지표	2022(8회)	2026(9회)	증감
사전점유율(전국)	40.79%	38.75%	-2.04%p
사전투표 절대 증가	-	-	+1,355,577표
본투표 절대 증가	-	-	+3,333,486표
본투표/사전투표 증가비	-	-	2.46배

핵심 발견: 전국 단위에서 사전투표 점유율은 오히려 -2.04%p 줄었다. 절대표는 사전·본투표 모두 늘었지만 본투표 증가폭이 사전투표 증가폭의 2.46배다. 즉 9회 지선의 투표율 폭증은 “사전투표가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본투표 당일 결집이 절대 다수의 동력**이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릴레이형 위기감 추동” 가설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시도별 사전점유율 변화(점유율 증감 기준 내림차순)

시도	2022(8회) 점유율	2026(9회) 점유율	사전점유율 증감	해석
전남	53.81%	59.77%	+5.97%p	호남 효능감 사전 결집 (자산세대 노년)
전북	50.76%	56.33%	+5.57%p	김관영 출마로 사전결집까지 강화
광주	46.25%	51.51%	+5.25%p	호남 효능감
세종	43.90%	44.46%	+5.57%p	보합
제주	40.61%	40.84%	+0.23%p	보합
강원	44.12%	42.30%	-1.82%p	본투표 우위
경기	37.90%	36.11%	-1.79%p	본투표 우위
대전	39.96%	37.92%	-2.04%p	본투표 우위
충남	40.93%	38.45%	-2.48%p	본투표 우위
경남	40.96%	38.50%	-2.45%p	본투표 우위
서울	40.05%	37.63%	-2.42%p	본투표 우위
울산	37.79%	35.18%	-2.61%p	본투표 우위
충북	42.42%	39.73%	-2.69%p	본투표 우위
부산	38.13%	34.46%	-3.67%p	본투표 결집 강함
인천	41.26%	37.35%	-3.91%p	본투표 결집 강함
대구	34.48%	29.20%	-5.28%p	TK 본투표 위기감 폭발
경북	44.54%	37.21%	-7.34%p	TK 본투표 위기감 폭발(최대)

패턴이 매우 깔끔하다.

- 호남 3개 광역(전북·전남·광주)만 사전점유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 - 민주 효능감의 “평온한 사전 결집”.
- TK 2곳(경북 -7.34%p, 대구 -5.28%p)과 PK·인천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 사전투표 종료 후, 본투표 당일 “안 되겠다, 나가야 한다” 위기감이 폭발한 권역.
- 서울의 사전투표 점유율도 -2.42%p로 감소 - 이번 선거 신규 동원의 큰 몫은 본투표였다.

시도별 본투표 증가폭(8회 → 9회 본투표율 증감)

시도	본투표율 증감	해석
대구	+17.19%p	전국 최대 김부겸 견제+민주독식 공포
부산	+10.35%p	PK 위기감 결집
경북	+8.96%p	TK 본진 결집
울산	+9.02%p	영남권 결집
경남	+8.21%p	박완수 본투표 의존 승리
인천	+6.84%p	유정복 인물+본투표 결집
서울	+6.62%p	자산세대 본투표 동원
충남	+5.30%p	-
충북	+5.40%p	-
경기	+4.78%p	-
세종	+4.22%p	-
강원	+3.40%p	-
대전	+4.96%p	-
광주	+1.49%p	사전투표 위주 결집
제주	+1.13%p	보합
전북	+0.71%p	사전투표 위주 결집
전남	-0.31%p	본투표 오히려 감소(사전투표 완료)

결론: 본투표 위기감 가설의 강한 입증

- 사전투표 점유율 감소(전국 -2.04%p)와 영남·수도권 본투표 결집(대구 +17.19%p)이 동전의 양면이다.
- 8회 지선이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리면 이기는 선거”였다면, 이번 9회 지선은 “사전투표가 끝난 뒤 결집된 위기감이 본투표 당일 결정적으로 작동한 선거”로 볼 수 있다.
- 호남에서만 사전투표가 늘었다는 사실은, 효능감 진영은 “평온하게 사전”, 위기감 진영은 “투표 당일 결집”이라는 시간 분할이 이번 선거에서 더욱 뚜렷해졌음을 보여준다.
- 이는 향후 모든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본투표 동원 효율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구조적 변화의 신호이다.

● 사전투표 65 대 31이 본투표 43 대 54로 뒤집힌 의미

위 가설을 가장 강하게 입증하는 데이터는 동일 자치구의 관내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본투표)에서 같은 후보의 득표율 차이이다. 첨부 자료 가운데 사전·본투표 구분이 가능한 12개 시도(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부산·울산·경남·대구) 광역단체장 선거의 읍면동 개표 결과를 시도 단위로 재집계했다. 호남과 제주, 경북 등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지자체는 제외하였다.

12개 시도 사전투표 vs. 본투표 득표율 격차(단위: %)

시도	사전투표율 (민주당)	사전투표율 (국힘)	본투표율 (민주당)	본투표율 (국힘)	본-사 증감 (민주당)	본-사 증감 (국힘)
서울	65.21	31.58	37.66	58.50	-27.55	+26.93
울산	64.92	29.37	38.91	52.35	-26.01	+22.97
대전	69.00	27.74	43.71	52.79	-25.29	+25.05
부산	66.50	31.10	41.34	55.72	-25.16	+24.62
인천	67.74	30.33	43.75	54.06	-23.98	+23.73
경기	70.10	23.96	46.34	46.46	-23.76	+22.50
대구	61.18	36.80	37.93	60.04	-23.25	+23.24
세종	74.02	22.67	51.28	44.87	-22.74	+22.20
강원	63.45	34.85	41.42	57.05	-22.03	+22.21
충남	64.47	33.40	43.83	54.59	-20.64	+21.20
경남	60.34	37.78	39.82	57.49	-20.51	+19.71
충북	65.12	32.74	45.72	52.51	-19.39	+19.77
평균	65.17	31.03	42.64	53.87	-23.36	+22.84

12개 시도 중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본투표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의 득표율 대비 -19%p 이상 폭락했다. 평균 -23.36%p. 동일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해, 같은 시도의 사전투표소에서 65%를 받은 사람이 본투표소에서 43%만 받았다. 이 격차는 한국 선거사에서 유례없는 수준의 양극화된 동원 격차다. 사실상의 병렬 선거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이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 함의가 도출된다.

첫째, 사전투표는 더 이상 “조용한 사전 결집”이 아니라 “효능감 진영의 명시적 표출 구간”이다.

사전투표 평균 민주 65%는 단순히 진보 유권자의 선제적 참여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취·민주당 지도부의 의제 동력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효능감의 정량 표출이다. 호남·4050·수도권 진보 코어가 사전 첫째날부터 결집했다는 사실이 시간 단위로 공표되었다.

둘째, 본투표는 사전투표 결과의 함수다.

12개 시도 모두 사전 점유율 발표 → 출구조사 발표 직전까지 보수 진영은 사전투표는 민주당 지지층이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었다. 영남(부산 -25.16%, 울산 -26.01%, 대구 -23.25%, 경남 -20.51%)과 수도권 보수 거주지(서울 -27.55%)에서 본투표 보수 결집이 가장 강했다는 사실은 사전투표 신호가 보수 비동원층의 위기감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동했음을 보여준다.

셋째, 이 양극화 격차가 “동원된 투표율”의 실체다.

9회 지선 투표율 61.0%는 8회 대비 +10.1%p 상승이지만, 그 상승의 정체는 “중도 유권자가 흥미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두 진영이 시간차로 강하게 결집한 결과이다. 사전투표 65 대 31의 진보 우위가 본투표 43 대 54의 보수 우위로 뒤집힌 12개 시도 평균 -23.36%p 격차는 한국 정치의 정서적, 이념적 균열과 양극화가 시간차를 둔 분할 동원의 형태로 정량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전투표는 효능감의 표출, 본투표는 위기감의 결집, 그 사이에 있는 득표율의 급격한 격차가 한국 정치 양극화의 정량 지표이다.

이 격차가 향후 선거에서 더 확대된다면, “투표율 상승=민주당 유리”라는 통상의 등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본투표에서의 위기감 결집이 사전투표에서의 효능감 표출을 압도할 수 있는 임계점이 곧 다가올 것임을 데이터는 시사한다.

● 출구조사 보수 응답 격감: 지각변동인가, 응답회피인가

출구조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응답자의 자기보고 이념 분포이다.

이념	2022(8회)	2026(9회)	증감
진보	22.4%	33.3%	+10.9%p
중도	35.3%	36.9%	+1.6%p
보수	37.5%	24.5%	-13.0%p

진보가 +10.9%p 늘고 보수가 -13.0%p 줄었다. 그러나 이 수치를 그대로 “실제 보수 인구가 13%p 줄었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다음의 두 가지 효과가 합쳐진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 (a) 실제 보수 지형 축소: 4050·충청·강원·부울경 일부에서 보수가 진보로 자기 인식 수정
- (b) 응답 회피·shy 보수의 증가: 장동혁 체제, 일부 강경 보수 인사들에 대한 부끄러움, 회피로 인해 출구조사 응답에서 자신을 “보수”로 밝히기를 꺼리는 응답자 증가

(b)의 증거는 출구조사에서 서울시장 정원오 우세, 경남도지사 김경수 우세로 예측했지만 두 곳 모두 결과가 뒤집어졌고, 출구조사에서 예측한 득표율보다 국민의힘의 실제 득표율이 대부분 높았다는 사실이다. 단순 표본 오차로 보기에는 일관된 방향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념 분포 변화를 두 효과의 합으로 본다.

2022 보수 37.5% → 2026 실제 보수 추정 약 28~30%, shy 보수 약 4~5%, 그 외 진보·중도 전환 약 8~10%.

이 추정은 향후 선거 분석에서 결정적이다. 국민의힘이 4석에 그친 것은 “보수 인구의 절대적 축소”가 아니라 “보수 유권자의 동원 약화 + 응답 회피”의 합이며, 따라서 이 유권자 집단이 다시 동원되면 국민의힘은 즉시 회복될 수 있다.

• 469만 명은 신규 진입이 아니라 2018년 결집도의 회복이다

출구조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응답자의 자기보고 이념 분포이다.

추정 출처	규모(추정)	동기
민주 성향 비동원자 복귀 (호남·4050·수도권)	약 250~300만	효능감 회복
보수 성향 비동원자 복귀 (TK·70대 + shy 보수 일부)	약 150~200만	위기감 결집
신규 유권자 (2030 초반)	약 30~50만	혼합

이 추정은 시도별 투표율 상승폭, 출구조사 성·연령별 표심, 이념 분포 변화, 그리고 출구조사 응답 편향 보정을 종합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469만 명 중 약 60%는 민주 진영의 효능감 복귀, 약 35%는 보수 진영의 위기감 복귀, 약 5%만이 신규 유입이다.

이번 선거는 그래서 “중도가 결정한 선거”가 아니라 “양 진영의 시간차 동원 결집 선거”였다.

여기서 핵심은 한 번도 투표하지 않던 유권자가 새로 들어온 게 아니다. 2018년 7회 지선의 60.2%와 이번 61.0%를 비교해보면 차이는 +0.8%p에 불과하다. 2022년 50.9%로 내려갔던 결집도가 2018년 수준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사라졌던 표가 돌아왔고, 그 회귀의 동력이 민주 진영의 효능감과 보수 진영의 위기감이었다.

추가로 한 가지 변수가 더 있다. 2025년 6월 대선에서 이준석(약 8.34%) + 김문수(약 41.15%)의 합은 이재명(49.42%) 단일 득표율을 약간 상회했다. 즉 보수·비민주 진영의 잠재 결집력은 이미 이재명을 능가했다. 이 잠재력이 1년 만에 단결 유인으로 작동한 것이 이번 선거 보수 위기감 결집의 한 축이다. “이대로 두면 진다 + 단결하면 막을 수 있다”가 동시에 작동했다.

이것이 첫번째 핵심 결론이다.

공공정책·정치컨설팅 그룹 원지코리아컨설팅

대통령 PI를 수행한 전략컨설팅의 강자 / 가장 정확한 조사
지자체, 공공기관 정책홍보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여론조사, 선거컨설팅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9층(여의도동 13-25)